

■ 연구원 소식

○ 3차 역사문학기행 신청 안내(~11월 15일)

일 시 : 2019년 11월 30일(토) 09시~18시

장 소 : 경남 거창양민학살사건 추모공원, 남원 실상사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내 용 : 겨울골짜기와 만나는 거창의 아픔, 그리고 해원

대 상 : 회원 및 시민 30명

참가비 : 20세 이상 1만원

2019년 3차 역사문학기행이 오는 11월 30일(토)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기행은 소설가 김원일의 작품 <겨울골짜기>와 만나는 거창 지역입니다. 서슬 퍼렇던 80년대 빨치산과 국군의 양민학살 문제를 주제로 발표된 이 작품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양민학살사건"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문학기행에 참가하시기 전에 김원일 작가의 작품 <겨울골짜기>와 먼저 만나고 오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답사 당일 요약본과 줄거리, 작품해설 등이 제공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11월 15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좌석 관계상 서른 분만 모실 수 있습니다.

■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다섯 번째 이야기

그림이면 그림, 글이면 글, 차고 넘치는 재주를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명 봉 교수께서 보름간 네팔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야라”에서 ‘땅개’로



밤새 비가 내리더니, 참새들이 시끄럽게 아침을 연다. 지붕 위로 올라가 앞쪽을 내다보았다. 오른편 산의 정상에 하얗다. 그곳에는 비가 아니라 눈이 내렸던 것이다.

7시 30분 출발이다. 미로 같은 마을길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가이드 텐지까지 헤맨다. 게다가 개울물도 부쩍 불었다. 시커먼 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른다. 어느 쪽으로 건널까 모두들 망설이는 사이에, 나는 포터들을 따라 이리저리 물살을 골라 개울을 건넜다.

내내 망설이기만 하던 일행들은 아래쪽에서 결국 등산화를 벗었다. 그리고 포터들의 도움 속에 물을 건넜다. 이때부터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떴고, 숨 가쁜 경사로가 1시간가량 이어졌다. 그리고 평탄한 초지가 열렸으니, 북쪽으로 약간의 경사가 흘렀을 뿐이다.

날씨가 매우 쾌적하다. 앞쪽의 설산들이 푸른 하늘 아래 눈부시게 하얗다. 왼쪽의 푸른 산 아래로는 우리가 거쳐 온 길이 보인다. 사마르-길링-닥마르-말랑 마을이 분명하다. 며칠 전의 경로인데도 벌써 꿈속 같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짐승들도 보이지 않는다.

10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다. 아래쪽으로 큰 물줄기가 다시 나타난다. 일견에도 100m는 넘는 철제 출렁다리가 길게 놓였다. 가파르게 내려오던 걸음들이 다리를 만나 편안해진 탓일까? 모두들 주변 경관을 사진에 담는다고 저마다 바쁘다.

11시가 조금 넘어, 디에의 외딴 롯지 '리버 사이드'에 도착했다. 마침 확장 공사 중인데, 이곳이 아니면 점심을 해결할 곳이 없다고 한다. 바로 옆은 곰파다. 점심을 기다리는 동안 아시시가 와서 암모나이트 화석을 내보인다. 강가에서 방금 주었다고 자랑이다.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와 보니, 포터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에 열중이다. 무얼까? 장기라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네 고누와 비슷한 놀이다.

다시 오르막이 열린다. 땅개 표지판이 있는 곳은 해발고도 3,900m이다. 전방에 좌에서 우로 툼리쇼·닐기리·다올라기리가 구름에 덮인 모습을 드러낸다. 길은 다시 평평하게 이어지다가 초지로 내려가길 두어 번 반복한다. 햇볕이 내리쬐이고, 바람이 분다.

걷다보니, 줄로 이어진 룡다와 위로 솟은 타르초가 왜 노랑-초록-빨강-하양-파랑색으로 이어졌는지 실감이 난다. 노랑은 땅을 상징하고, 초록은 바람을 상징한다. 빨강은 당연히 불이고, 하양은 구름이다. 파랑은 물론 하늘이다. 땅위에 서면, 가장 먼저 실감나는 것은 다소 차갑게 느껴지는 지상의 바람이다. 그러나 금세 머리 쪽으로 열기를 느끼게 되고, 구름을 바라보게 된다. 구름 뒤쪽은 하늘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걸었다. 룡다와 타르초가 열어주는 외로운 길 하나를 따라 걸었다. 노란 지면 위로 초록의 바람이 불었고, 붉은 더위가 내리 쬐었다. 하얀 구름 너머로 푸른 하늘은 여전히 있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한 줄기 길은 우리들의 고단한 오후를 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해발 3,250m의 '샤밤바' 롯지에 닿았다.

한밤중에 별 구경을 했다. 슬쩍 열린 하늘가에 별들이 빛을 발했으니, 하늘의 1/6이나 채웠을까?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나는 오랫동안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대의 맑은 눈망울이 고요히 나를 내려다보았다.

“땅개”에서 ‘데땅’으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오늘은 표고 1,100m를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 가장 힘든 날이다. 중간에 롯지도 없으니,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겨야했다. 삶은 감자 두 알과 계란 한 개에 주먹밥 한 덩이가 전부였다. 포터들 역시 비장한 표정이다. 몇몇은 아침부터 안 내지도 앞에 서서 웅성거린다.



다른 날과 달리 7시 출발이다. 마을을 따라 오르던 길이 출렁다리와 이어진다. 그리고 능선 하나를 넘은 다음 강을 만났다. 강폭이 넓고 깊기에 모두들 신발을 벗었다. 검은 물살이 거의 무릎까지 이른다. 역시 만만치 않은 시작이다.

오르막이 열린다. 해발 4,183m의 파야까지 올라야 한다. 앞쪽에 코끼리 형상을 지녔다는 거니쉬 히말라야가 하얗기만 하다. 그러나 오르고 오르는 일도 끝이 있기 마련 아닌가? 4시간의 고생 끝에 파야로 올랐으니, 포터들도 지칠 만큼 지쳤다. 서로간의 격려 담긴 눈빛과 손짓 하나만으로도 마냥 고마울 뿐이다.

점심을 먹기로 예정했던 C·P에 닿은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인 12시였다. 출발 전에 C·P가 무슨 뜻이냐고 텐지에게 물었는데, 약수터라는 답이 돌아온 바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곳에서 약수가 뿜어져 나왔다. 다른 사람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나도 직접 맛을 보았다. 예상대로 물맛이 짭짤했다. 해발고도 4,000m에서 나오는 약수라면 상큼해야 할 텐데 말이다. 물론 지질 탓이다.

약수터 앞쪽에 카르카가 보인다. 들어가 보니 한가운데에 염소 가죽이 매달렸다. 텐지의 말에 따르면, 한쪽의 붉은 비닐 천으로 덮인 것이 염장한 염소고기란다. 아무렴, 이곳에 룯지가 존재한다면 아주 편리할 자리다.

1시에 일어선 걸음은 저녁 7시가 되도록 이어졌다. 추쌍까지 이르는 길은 하염없었다. 무슨 길이 멈출 줄을 모르는가? 포터들이 점점 뒤쳐졌다가 추월하기를 반복한다. 작열하는 한여름의 태양이 식을 줄을 모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록 내리막길이지만, 툼툼이 출렁거리던 길은 자꾸 험준해졌다.

물론 각오는 했던 길이였다. 그러나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야속하게도 길링과 샤마르가 오른쪽 강 건너에서 스쳐갔다. 추쌍이 바라보이는 즈음에 이르자, 길이 험한 만큼 절경이 이어진다. 그리고 내리막이 자꾸 급해진다. 앞쪽으로만 쏠리는 발끝이 마냥 아프다. 걷는 일에 넉더리가 날 무렵 마침내 추쌍에 도착했다. 날은 어두워졌다. 휴, 다행이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30분가량 데땅으로 오르는 밤길은 더욱 힘들었다. 차라리 처음 예약했던 추쌍의 룯지에서 묵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굴뚝같았다. 그러나 '사서 하는 고생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전해주 신부의 격려를 떠올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이어나갔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두 번째 이야기 “신원사와 증악단”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고왕암 입구 | 산대가 바스락거리는 오솔길을 벗어나야 고왕암이 나온다. 고왕암은 말과 말이 난무하는 세상이 싫어서 슬쩍 돌아앉았다.

신원사 계곡은 수량이 풍부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다. 그래서 가까운 논산시나 공주시에 사는 주민들에게 남다른 사랑을 받는다. 계룡산의 다른 계곡에 비해서 훨씬 한적하다는 강점까지 지녔다. 그만큼외지 사람의 발길이 드물다는 얘기도 된다.

다른 명산들도 마찬가지로지만 신원사의 계곡에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선명하다. 산비탈에 자라난 수없이 많은 풀잎과 나뭇잎을 스치느라, 더욱 청아해진 바람소리는 아연푸른빛이다. 자신을 낮추어라, 자신을 낮추어라 끊임없이 독송하면서, 아래로 아래로만 몸을 낮춘 계곡물은 어느 샌가 허공에 타고르는 새파란 향불 연기로 바뀐다. 계룡산이 보듬고 길러 낸 온갖 산새들은 '화엄의 세상이며, 어서 오라!'며 곳곳에서 초발심의 기쁨을 노래한다.

만약에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심심할까? 무료하기 쉬운 등산길에 고마워서 절로 든 생각이다. 그 생각을 따라 한 줄기 오솔길이 산자락을 탄다. 잠시나마 속세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산에 드는 사람들의 손길은 여기저기 남는 법이다.

간절한 마음 하나가 커다란 너럭바위 위에 돌탑으로 앉았다. 거미 한 마리가 이를 알아보고 기원에 힘을 보탤다. 산그늘도 슬쩍 비켜 앉았다.

신원사 계곡의 소나무들은 아주 푸르다. 혹독한 한겨울이 되면 저 소나무들은 더욱 새파래진다. 여름날 뜨거운 햇살에 담금질하고 두드려 낸 바늘잎들이 겨울을 맞아 서슬이 푸르러지는 탓이다.

처절한 수행을 통해 모든 업을 소멸시킨 스님들의 눈이 저 소나무들처럼 푸를까? 바라보는 내 눈까지 푸름으로 물든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목탁 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오는 듯하다. 흐르는 계곡물이 잠시 숨을 죽인다.

고왕암古王庵은 신원사에서 연천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신원사에서 소림원과 금룡암을 거쳐 40분가량 소요되는 지점이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산대가 울창한 수풀을 이룬다. 산대의 서걱거리는 소리가 서늘하게 들리는 길가의 오른쪽으로 고색창연한 계단이 길게 뻗었다. 등산로를 벗어나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만나게 되는 작은 암자가 고왕암이다. 고왕암 입구의 안내판은 친절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 중 하나인 신원사의 부속 암자이다. 660년(의자왕20)에 백제 의자왕의 명으로 창건하였다. 『공주읍지』에 따르면, 의자왕이 이 암자를 창건하도록 명하였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당시 당나라 소정방蘇定方과 신라 김유신金庾信이 백제를 침공하였을 때, 백제의 왕자 용릉이 이곳에 피난하였다가 붙잡혔기 때문이다. 암자 이름을 고왕古王이라한 것도 여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창건 이후부터 조선 초까지의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1419년(세종1)에 서함西函이 중건하고, 1928년에 청운淸雲이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건물로는 법당이 있다.

맨 처음 의자왕에게 고왕암을 창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스님은 부설거사의 아들인 등운대사라고 한다. 그러나 등운대사는 전란 통에 미처 암자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7년간 태자 용릉과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백제가 패망하게 되자, 등운대사는 위쪽으로 올라가 연천봉 바로 아래에 등운암騰雲庵을 지었다고 전한다.

일설에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계룡산에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고 한다. 그래서 고왕암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다음 주는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세 번째 이야기 “백왕전에 맺힌 한”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김진경 회원이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시 중 가 : 3만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